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수소	중앙	□ 한국, 세계 첫 청정수소발전시장입찰 사업 흥행 실패(2024-12-26) - 정부가 처음 실시한 청정수소발전시장입찰(CHPS)에서 남부발전만이 유일한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제기 - SK이노베이션 E&S가 계획했던 충남 보령 국내 첫 블루 수소 플랜트 건설이 입찰 선정 실패로 유보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GS칼텍스 등의 블루 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불투명해지는 상황 발생 - 업계에서는 미흡한 입찰 설계와 수소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을 흥행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유사한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 제시
		□ 도로공사,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변경 발표(2024-12-26) -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를 3년 연장하되,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 -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 진입 차량은 50%, 2025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40% 할인이 적용되며, 기존 할인 차량은 별도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나 신규 차량은 할인코드 등록이 필수 -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출퇴근 할인이나 화물차 심야할인과 중복 적용 시 높은 할인율이 자동 적용되며, 화물차 심야할인은 28일부터 영업소 방문 신청이 가능한 제도 시행
		□ 겨울철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안정화 대책 논의(2024-12-27)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개최하여 올해 연말까지 수소 수요량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9,499톤으로 추산되는 상황 공유 - 동절기(2024년 12월~2025년 2월) 수소 수요량은 최대 4504톤, 공급량은 최대 7865톤으로 예상되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나,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성 강조 - 환경부는 2024년 수소차와 충전소 구축 실적을, 한국석유관리원은 겨울철 및 설 연휴 수급관리 계획을, 수소버스 제조사는 거점별 정비소 확충 방안 등을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		공유하며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 충주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폭발 사고 안전점검 필요성 제기(2024-12-26) - 충북 충주시 목행동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시내버스 후면부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부상을 입고 시설이 일부 파손되는 사고 발생. 충전 완료 후 시동을 거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진 수소는 누출 감지가 어렵고, 폭발 시 강도가 세며 충격파도 발생하여 2차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전소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 제기 - 실시간 누출감지시스템의 정상 작동 관리, 정기적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한 수소 누출 방지, 위험구역 설정을 통한 사고 예방, 지속적인 대응 훈련과 안전교육 등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수소버스 폭발사고 이후 충북 지자체들 긴급 안전점검 실시(2024-12-26) - 충주시가 사고 이후 18대의 수소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15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내버스 제작회사와 가스안전공사, 경찰 등과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착수 - 청주시도 수소버스 안전점검에 착수하여 모든 버스 안전점검 실시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수소충전소와 CNG충전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충전소 운영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조치 - 음성군은 운행 대기중인 수소버스 충전용기 재점검과 수소충전소 4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
		□ 강원도,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핵심 축으로 부상(2024-12-26) - 강원도가 동해 북평 제2산업단지와 삼척 호산산업단지가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총 35만㎡ 규모에 3177억원을 투입해 수소 저장·운송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 추진 - 동해에는 수소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 및 63개 기업 입주 공간이 조성되며, 삼척에는 하루 30톤의 액화수소 생산시설이 구축되는 등 인프라 확충 - 강원도는 이미 수소시범도시와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축적한 수소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포항 수소연료전지, 울산 수소모빌리티, 울진 원자력 수소 등과 함께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전망
		□ 창원시,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2024-12-26) - 창원시가 59만 1145㎡ 규모의 미래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 로만시스, 범한퓨얼셀 등 11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6948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982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설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수소	지방	- 수소기반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소버스, 트램 등을 시작으로 수소 드론, UAM, 스마트방산, 로봇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 7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1만 명 이상의 취업 유발 등 지역 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
		□ 포항시, 이차전지·바이오·수소·마이스 신산업 성과 도출(2024-12-27) - 포항시가 '2024년 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포항시정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이차전지·바이오·수소 3대 특화단지를 석권한 성과를 강조 - 마이스 산업의 허브가 될 포엑스(POEX) 착공 등 신산업 육성 관련 소식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철강 위주의 획일화된 산업구조 다변화와 탄핵 정국 속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 -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항의 역량과 잠재력을 증명한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2025년에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
		□ 제주도, 수소차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착수(2024-12-27) - 제주도가 충주 수소버스 폭발사고 이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내년 1월15일 까지 도내 수소차·수소생산시설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 - 도와 소방안전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수소차량의 가스 누출, 압력 상태, 구조적 결함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 -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 메뉴얼 수립과 함께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
		□ 부산 금사동 수소가스 충전소에서 화재 발생(2024-12-27) - 부산 금사동의 수소가스 충전소에서 27일 오전 9시경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는 상황 -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을 정리한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임을 밝힌 발표 -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소 충전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된 사건
		□ 고양시, 경기도 최초로 마을버스에 수소버스 도입(2024-12-27)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수소	지방	- 고양시가 경기도 최초로 053번 마을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5대를 도입하며, 시내버스 1200번 노선에도 올해 중 11대, 내년 4대의 수소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 발표 - 수소버스는 1회 충전으로 최대 635km 운행이 가능해 전기버스보다 3배 긴 거리를 운행할 수 있으며, 충전도 30분 이내로 가능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한 장점 보유 - 고양시는 총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소경제 활성화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계획 수립
		□ 영암 대불산단 6100억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백지화(2024-12-29) -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하던 1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이 6108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가격 급등과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전면 백지화 - 한국중부발전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주도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 후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 주체의 자금 문제와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무산된 상황 - LNG 가격이 2020년 말 메가줄당 8.35원에서 2022년 10월 29.9원까지 치솟은 영향과 함께, 정부의 청정수소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으로 인한 수요 제한도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울진군, 수소산업추진단 등 우수 부서 선정(2024-12-31) - 울진군이 부서별 핵심과제·현안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확정'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 부서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김진성 주무관 등 4명이 선정되어 근무성적평정 가산,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혜택 부여 - 손병복 울진군수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종합평가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강원한우 개량을 위한 보증씨수소 KPN1640, KPN1649 선발(2024-12-29)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가 홍천과 영월의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KPN1640과 KPN1649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되어 강원한우 유전적 개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보증씨수소는 3년간 10만 개의 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유통이 가능하며, 6개월령부터 170일간의 당대검정과 후대검정을 통해 종합적 평가를 거쳐 선발되는 엄격한 절차를 통과한 개체 - 추가 선발된 KPN1665, KPN1668, KPN1647을 포함해 총 5두가 선발되었으며,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강원도는 농가 대상 개량기술 교육과 체계적인 혈통 관리를 통해 우수 개체 선발을 지속 지원할 계획
UAM	중앙	□ 정부, 공공용 주파수 7.5GHz 공급 계획 발표(2024-12-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안전과 국방, 신산업 육성을 위해 7.5GHz 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는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 - 20개 기관이 제출한 4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 계획 중 적정 8건, 부적정 3건, 조건부 적정 30건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민 안전 확보, 국방·안보 강화,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을 중점 고려 - 안전 분야에 300MHz, 국방 분야에 4.8GHz, 위성·UAM 등 신산업 분야에 2.4GHz를 배정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계획 수립
	지방	□ 김포공항 일대, UAM 중심의 서남권 신경제 거점으로 개발(2024-12-27) - 서울시가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강서구 공항동 107만㎡ 규모의 부지를 서남권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 확정 -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이 있는 1블록에 UAM 이착륙장을 포함한 복합 환승 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철, 택시, 고급 간선급행버스 등이 연결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내용 - 2블록에는 항공업무시설, 3블록에는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지난 9월 지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진행될 계획
우주	중앙	□ 우주분야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 추진(2024-12-29)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등을 심의. 특히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 등 우주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구조 - 기술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도 고도화.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분석과 기술검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보유확인제 및 등록제 도입을 통해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 - 수출·M&A 심사제도도 정비.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한 직권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권한을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하고,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실정
	지방	□ 우주항공청 소재지 사천, 국제공항 승격 추진(2024-12-29) - 경상남도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을 시작.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선 것을 계기로,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따른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우주	지방	여객과 화물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에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하는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구조 - 실무적인 준비도 본격화. 전문가 9명과 실무자 6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고 국제공항 재편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특히 사천을 중심으로 한 국제 MRO(항공기 유지·보수 등)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경남과 전남의 남중권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주요 기대효과로 제시한 상태 - 공항공사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고조. 비즈니스 승객의 증가와 높은 탑승률, 우주항공청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인프라의 발전 등을 근거로 국제공항 승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추세
		□ 사천시장,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가속화 제시(2024-12-30) - 사천시장은 2025년도 시정 운영방향에서 조속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 프랑스의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도시인 툴루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한 구조 -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제시. 위성개발혁신센터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실시설계 착수, 우주항공 기업과 인력양성에 44억원 지원,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분양, 용당 항공MRO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 등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한 상태 - 교육과 인재 육성에도 중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함께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국립창원대와 함께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등 우주항공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한 형태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UAM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국가기관	□ 우주청, 위성개발기업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 논의(2024-12-26) -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위성개발 기업들과 함께 한국형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LIG넥스원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국내 개발 현장의 요구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형태로, 위성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은 위성의 설계부터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매뉴얼의 성격. 기존의 유럽과 미국의 핸드북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신생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구조 - 우주청은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위성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민간 주도 개발역량 강화가 우주산업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한국형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 개발을 시작으로 위성 기업의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 제시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 아헤스, 전북도 4번째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2024-12-26) -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및 주변기기 제조, 연구개발을 하는 아헤스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전북도내 두산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코스테크에 이어 4번째 수소전문기업이 되는 성과 달성 -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특허 및 디자인 출원·분석 지원, 기술도입 및 보호, 연구장비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제공 - 아헤스는 친환경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2MW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영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 판로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무산 후 수소·반도체 사업 강화(2024-12-26) -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된 후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주)두산의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인수하고, 두산테스나가 자회사 엔지온을 흡수 합병하는 등 수소와 반도체 사업 강화 움직임 -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13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며, 두산그룹은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첨단소재 3대 축으로 사업구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조를 재편하는 전략 추진 - 그룹 관계자는 수소·반도체로의 재편이라기보다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강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반도체와 전자소재는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게 3대 사업 축으로 육성한다는 입장
		□ 텍스이노베이션, 전남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2024-12-30) - P2G(Power to Gas) 지향 EMS(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텍스이노베이션이 전라남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소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는 전력 변환과 저장, 방출을 통합 제어하며 현재 GS(Good Software) 인증 시험을 진행 중으로, 인증 완료 시 국내외 수소 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기대 - 전라남도의 수소 산업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과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계획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목표
		□ GIST, 플렉서블 광전극으로 안정적 수소생산 기술 개발(2024-12-31)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지르코니아 소재를 활용해 1만번의 반복 구부림에도 24시간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광전극 개발에 성공 - 3YSZ 기판이 현재까지 보고된 플렉서블 기판 중 가장 높은 탄성 계수와 항복 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부림 테스트 후에도 초기 성능의 99.8%를 유지하는 뛰어난 내구성 입증 -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태양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국회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논의 활발(2024-12-29)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회수소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수소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이 대한민국 미래와 전 세계 수소유통 질서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선제적 설립으로 글로벌 수소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 - 전북도와 완주군이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 지정 이후 수소경제도시로서의 입지를 강조하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최적지로서의 역량을 어필하는 상황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UAM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중국 UAM 기업 이항, AI 기술력 발전 보여(2024-12-30) - 중국 eVTOL 전문 제조기업 이항이 2인승 'EH216-S'의 상업 운항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민용항공총국으로부터 형식인증, 감항인증, 생산허가증을 모두 획득한 유일한 기업으로 부상 - EH216-S는 최대 2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30km로 30km 이내 거리를 25분간 비행할 수 있으며, 선전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에서 1~2년 내 상업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이항 외에도 샤오핑후이텐, 에어로푸지아 등이 UAM 분야의 다크호스로 평가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저고도경제개발부를 신설하여 저공경제 발전 전략과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추진
	기타	- (해당 없음)
우주	민간기업	□ 한화, 우주항공 인재육성 위한 과학고실 완료(2024-12-27)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항공 특화 교육 프로그램 '2024 우주 라이크 투 우주'를 성공적으로 완료.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되어온 이 프로그램은 창원, 대전, 여수 등 전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인근 7개 중학교 17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운영된 교육 과정 - 프로그램은 항공엔진의 구조와 원리, 발사 추진체와 에너지 물리학 등 우주항공 분야의 이론 교육과 모형 제작 실습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구조로 구성. 학기 중 진행되는 교육임을 고려하여 전문 강사와 한화 임직원이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징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산업에서 인재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육성 로드맵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우주항공 전문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을 강조. 특히 지구 환경과 효율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항공우주선 제작 등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 마련
		□ 키프코우주항공, K2전차용 안티드론 재머 시스템 개발 착수(2024-12-31) - 키프코우주항공이 현대로템과 'K2전차용 안티드론 재머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 이 시스템은 전파교란 장치를 통해 적군의 드론 공격을 방해하거나 추락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RF 스캐너 모듈로 드론과 운용자 사이의 전파를 탐지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구조 - 기존 기술력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우주 감시 레이더 개발에서 획득한 고출력 반도체 전력 증폭 기술과 소형TACAN 전술 항법 장비의 항재밍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군사 작전이 증가하면서 안티드론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에 의한 전차 파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
	대학교	□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신입생 전액 지원(2024-12-26) - 경상국립대학교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893명의 신입생을 7개 전형으로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 일반전형 843명을 비롯해 지역인재전형에서 의예과 35명, 간호학과 9명, 약학과 6명을 수능 100%로 선발하며, 평생학습자전형과 정원 외 전형도 함께 운영하는 구조. 특히 체육교육과 실기고사 폐지와 미술 교육과 종목 변화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인 상황 - 우주항공대학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주목할 만한 수준. 모든 신입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성적 상위 30% 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생활보조금을 지급. 또한 GNU-KAI형 계약정원제와 KAI·한화시스템 취업 연계 트랙, 경남 소재 우주항공 강소기업 취업 연계 트랙을 운영하여 졸업 후 진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상태 -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학사제도도 운영 중. 실무 중심의 최소 단위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디그리'를 12개 분야 56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척학 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교과목을 설계하고 창의적 활동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율적인 학습 시스템 도입
		□ 경북대, 첨단학과 증원 전국 최다로 우주·모빌리티 강화(2024-12-26) - 경북대학교가 첨단융합 교육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융합대학을 설립하고 2025학년도에 113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 분야 정원 증원을 달성. 우주공학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혁신신약학과 등 다양한 첨단 학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에는 로봇공학과와 의생명융합공학과도 신설하는 확장 구조 - 정부 지원 국책사업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으로 5년간 총 20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5년간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연구중심종합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상태 - 국제적 위상도 지속적으로 상승. THE의 '2024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39위, 국내 3위, 5년 연속 국립대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105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구조
	해외	□ 일본, 외국인 창업가 2배 증가로 우주·AI 인재 유치 확대(2024-12-26) - 일본의 외국인 창업가 수가 급증하며 주목받는 상황. 2023년 기준 경영·관리 재류자격 취득자가 6335명으로 집계되어 2022년 3354명 대비 약 2배 증가.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프로젝트'와 2020년 도입된 유학생 대상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로 분석되는 추세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해외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증가의 주요 원인.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장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특정 활동'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대학 졸업 후 창업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에게는 최장 2년간의 체류를 허용하는 등 창업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정책 구조 -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 2022년부터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며 전 세계의 우수한 창업 인재를 유치하여 유니콘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 실제로 구글 출신 AI 연구자가 설립한 '사카나 AI'가 창업 1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기타	□ 농가소득안정화·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4-12-26) -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가소득안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용 사업소 주민세 면제 등 4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조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주개발 진흥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 개최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미국의 Space Tech Expo, 일본의 ISTS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우주 박람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우주기술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형태 - 서천호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우주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위한 법안 통과 의미 강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 핵융합·우주산업 주도권, 민간으로 이전될 전망(2024-12-31) - 이코노미스트의 '2025 세계대전망'에 따르면 핵융합과 우주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 특히 핵융합 발전에서 민간 기업 커먼웰스퓨전이 개발 중인 핵융합로 '스파크'의 성과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35개국이 협력하는 'ITER'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인한 주도권 변화가 예상되는 구조 - 우주 산업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확대. 스페이스X가 연간 100회 이상의 발사 성공을 기록하며 새로운 '슈퍼파워'로 부상했으며, 스타링크를 통한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 도입 계획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도 진행 중인 상태로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추세 - MIT와 로켓랩의 금성 탐사선 'VLF'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민간 주도 혁신 사례로 부각. NASA의 달 탐사 로켓 발사 비용이 약 40억 달러인데 비해 VLF의 총비용이 1000만 달러 미만으로 예상되는 등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민간의 경쟁력이 입증